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창세기 3:15

정윤돈 목사님

1. 복음 소식의 의미

(1) 복음 메시지 :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다. 영어로는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너무 쉽지 않나.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소식이라고 한다. 이 복음소식의 내용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된다.

(2) 영접 메시지 : 구원의 길을 전할 때 핵심이 영접이다.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아닌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증인이다. 거듭나게 되어 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것은 결론이 안 난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되어 있다.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까 고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메시지라고도 한다.

(3) 기본 메시지 : 기본메시지, 기초메시지라고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전부다. 이 복음을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은 시간 지나면 다 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성경을 다 외워도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이 된다. 목회자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 노력을 하고 인본주의를 쓰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응답, 해답, 결론이 있는 줄 믿으라. 이것은 그래서 기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반석과 같은 메시지다. 오늘 다시 한 번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시는 것이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맡겨라. 그러면 행복하다. 평안하다.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가 증인이 안 된다. 덜 말했으니가 행복하지 않다. 맡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겨우 칠팔푼을 붙들었다. 두 시간을 바들바들 떨면서 붙잡고 있다가 힘이 다 빠져서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떨어져 보니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물이었다. 다 놓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다. 우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야 한다.

2. 창조주 하나님

(1) 우주 만물의 창조 :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일본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물어 보았다. 이분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오직 성경만이 시작, 과정, 이유를 다 밝히고 있었다. 그래서 붙잡았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하지만,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히브리서 9:27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장례식장 수없이 가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버티고 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라.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다. 성경만이 말씀한다. 끝난 게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영벌로 가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복음소식 밑에 누가 댓글을 썼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은혜로운 복음소식을 올려 놓으니까 그런 말만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답을 쓰기는 했는데 엉망이었

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통화를 해 보려고 한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라. 지옥을 안 만드셨으면 훌륭한 하나님이 라고 할 수 있는가?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왕이라면 감옥을 안 만들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을 두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판사가 ‘나는 인격적이니까 당신은 무죄’라고 하면 되겠는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밤 새야 한다. (웃음)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셔서 우리를 구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2)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 :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없으시겠는가?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않나? 옛날 시대를 보라. 삼봉에게, 노비에게는 인격도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도 없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그 중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이다. 물에 빠진 많은 사람 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 많은 물에 빠진 사람 있는데 나만 건지고 다른 사람은 버림받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건짐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힘을 내서 아직 물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내가 지옥에 가라’ 할 때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구원하신 것이다. 이 은혜, 이 감사가 있어야 전도자가 된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영생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3) 원래의 인간 :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정복할 수 있지만 진짜 정복은 안 된다. 다 파괴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된다. 진정한 정치, 경제, 문화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될 때 일어난다. 이게 회복 안 된 사람은 마귀 자녀고 마귀 종이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 예외가 없다. 삼사 때, 천대까지 망한다. 세월 지나면 다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 복음 모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면 문제가 왜 생기는지 모르고 신비주의를 따라가게 된다. 신천지의 80, 90%가 기독교인이었다. 정확한 문제도 답도 모르니까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신비주의로 가다가 틀린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된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시기를 축원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른 것 회복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지만, 될 수밖에 없다. 300년 후에는 로마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지손들은 복음도 없는데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동산을 주셨다. 먹고 노는 곳이다. 천국은 먹고 놀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곳이다. 램뎀트들 떠들지 말고 (웃음)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학교가 없다. 학원이 없다. (웃음) 여러분이 복음 없으면 계속 학원 가고 학교 가는 지옥에 갈 것이다. (웃음) 계속 회사 가는 지옥에 갈 것이다. (웃음) 그리스도 누릴 때 축복이 회복된다.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떠오르는 미소가 있다. 구원의 미소가 있다. 힘들고 어렵고 고문당하고 몸이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도 떠오르는 미소가 있다. 그 미소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란다. 흑암에 싸이지 말고 문제를 넘으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란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상처받지 않았다.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랐다.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영적 서명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인간의 실패

(1) 선악과 언약 :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2) 인간의 불순종 : 그런데 인간이 불신양해서 이것을 따먹은 것이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진다.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하게 된다. 하와가 뭐라고 했는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른 말을 하고 변경했다. 강단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복음화 흐름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서 마귀에게 당한 것이다. 인본주의다. 나에게 맞게 변경하고 침착한다. 그게 교만이다.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강단의 말씀도 교만하면 안 들리게 된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명의 메시지가 각인되는 것을 믿으라. 마귀는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자에게 들어가니까 확 덮여 버렸다.

(3) 실패의 결과 : 그러니까 욕신의 눈이 밝아졌다.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람에 빠져서 욕이 되어 버렸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도록 따라오게 된다. 욕으로 가면 죽는다. 증거를 나중에 보여주려고 한다.

4.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된다. 그 중에 있는 불신자의 상태 여섯 가지가 있다. 불신자가 망하는 여섯 가지 단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온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다 온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 상태 메시지를 보고, 어떻게 내 문제가 여기 다 있느냐 그런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성공 쾌락 물질 중심으로 간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게 된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우상 섬기고 점 치러 간다. 문제 생기면 여러분은 오직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한다.

(1) 근본 문제 :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 이기심, 정욕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버렸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겠나. 그런 영적 상태가 쌓인 것이다.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울무를 다 무너뜨리기를 축원한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신분이 죄인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롬3:10, 23).

(2) 영적 문제 :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다. 무당이 되는 사람을 보라. 작두 한 번 타면 15일 동안 몸이 아프다고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인간의 몸은 성령과 맞다. 그러니 악령이 들어가면 안 맞는 것이다. 독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무당들은 다 아프다. 혹시 궁극한 분은 귀신들리도록 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웃음) 무당들 보면 가정이 다 무너져 있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임을 믿어야 한다. 모든 게 거기에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열두 가지다. 잘게 썰면 오만 가지 문제다. (웃음)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나이들수록 만 가지씩 늘는다. (웃음) 6만, 7만, 8만 가지 된다. 그러다가 결국 멸종한다. 제주도에도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500명이 있다. 그런데 후손 있는 사람이 없다. 가문이 멸족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된 고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저주받고 재앙을 만나서 멸종의 위기를 당한 것이다.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가 되어서 율법에 빠지고 정죄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니가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정죄한다. 율법, 종교,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변에는 망할 정도로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다. 나는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다. 마음 상태를 그대로 적어보라 했더니 이렇게 썼다. [멍하다. 어지럽다.] 항상 그렇다. [죽고 싶다. 짜증난다. 미칠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심팔. 욕이 나온다.] 욕 이미 해 놓고 (웃음) 나올 수밖에 없다. [포기하고 싶다. 살인. 아빠. 화남. 피곤함. 귀찮음. 아픔. 짜증.] 갑자기 램프들이 떠오르는데. (웃음) [불만. 불평. 왕 짜증.] 불신자 상태가 이렇게 된다. [살고 싶다. 웃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쉬고 싶다. 여행가고 싶다. 가족이 그렇다.] 결국 다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 떠난 상태. [죽이고 싶다. 사는 것이 어렵다. 중요 갈등. 힘들다. 싸우고 싶다. 괴롭다. 자살하고 싶다.] [우울. 분노. 죽임. 후회. 고민. 고민.]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분들과 대화를 해 봤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다.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목사라고 말도 안 했다. 그냥 상담자로 갔다. 그런데 하는 말이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악마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 버려야 한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24시 해야 한다.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믿음 좋아지겠나. 바로 믿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그게 3오늘이다. 의미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결론내고 살려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구원받은 수준에서 머무르면 되겠는가. 천명, 소명, 사명을 모르는 것이다. 결단해야 한다. “마약사범으로 피해서 부인과 산 속에서 3년 살았는데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 장난으로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도박 중독자가 되어 모든 것을 날리고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게임하고 하던 것이 나중에 말리지 못하게 된다. 어른을 누가 말리겠나.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있는 체질이 안 되면, 문제 생기면 내 마음대로 간다. 다 망하게 된다. 주변도 망하게 만든다. 이 마약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돈은 맹랑한 것입니다. 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었다. 돈이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한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고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돈이 생기면 바로 나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 많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이 없어야 한다. 그게 축복이다. (웃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응답과 체질이 있기를 축원한다.

(3) 정신 문제 : 정신문제가 온다. 우울증이 온다. 과거에는 정신병의 종류가 몇 십 개였다. 지금은 갈수록 늘어난다. 우울증, 공포증, 강박증. 생각해 보라. 강박증 환자는 수십 번을 가스 불을 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한다. 계단 걸으면서도 계단의 숫자를 계속 센다. 대인공포증이 있다. 복음 받으면 치유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이 계속 늘어난다. 사회가 발전하고 대학이 발전하고 교육기관은 많아지는데 문제는 더 늘어난다. 숨은 정신문제가 더 많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복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지금 학자들은 아직도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모르고 있다. 복음으로만 치유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이 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다.

(4) 육신 문제 : 하나님 떠나니까 욕신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온다. 재앙과 사고와 저주의 문제가 온다. 되는 일이 없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인데, 이게 다 실패하는 것이다.

(5) 내세 문제 :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6) 후대 문제 : 그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된다.

5. 구원의 길

(1)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 : 그래서 인간이 교육, 철학, 선행, 학문,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원죄 문제의 해결자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는 기쁨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참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참 왕으로서 사단 문제를, 참 선지자로 불신앙과 하나님 떠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셨다.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영접할 때 근본문제, 오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2) 주인으로 영접 :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오르신 분이요 재림주로 구름 타고 오실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이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란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강아지가 여러분을 보고 짖을 만큼 새롭게 되시기를 바란다. (웃음) 주님 안에 다 있다. 기도로서 함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로, 또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